



# 미래의 잔영

MELISSA SCOTT 단편 소설

스토리

MELISSA SCOTT

일러스트

GORLASSAR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CHAMBERLAIN, MIRANDA MOYER, NESSKAIN,  
DION ROGERS, JOSHI ZHANG

제작

BRIANNE MESSINA, CARLOS GARCIA RENTA,  
TAKAYUKI SHIMBO, VALERIE STONE

**BIZZARD**  
ENTERTAINMENT

Blizzard.com

© 2025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와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본 소설은 픽션입니다. 만화에 등장하는 이름,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상상의 산물이거나 허구로 사용되었으며, (생사를 막론하고) 실제 인물과 사업체, 사건,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는 작가 또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그 내용에 대한 통제권과 책임이 없습니다.

## 미래의 잔영

일요일 아침의 헌팅던 연구동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전날 밤 스테이트가 세인트 토머스를 이겼기 때문이겠지. 잭 모리슨은 낡은 세단을 동쪽 출입문 근처 주차 공간에 밀어 넣으며 생각했다. 다들 밤늦게까지 축하 파티를 즐기고 늦잠을 자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잭은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일을 나왔다. 이번 강의는 다음 진급에 중요한 과정이었고, 내용 자체도 꽤 흥미로웠다.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온갖 과대 광고들 틈바구니에는 부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이 숨어 있었다. 자기부상 열차나 사람에 가까운 지각력을 갖춘 로봇에 대해 호들갑 떠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수년 후의 얘기였지만, 잭이 배우는 기술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잭의 부대는 앞으로 마주할 어떤 위협에도 더 잘 대비할 수 있으리라.

잭은 로봇공학과 12번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평소 사용하던 워크스테이션에 노트북을 연결했다. 프로젝트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다. *다목적 드론과 인간 요소의 정찰 활동 통합 연구*. 잭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부대 사기를 대신할 만한 변수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 외의 요소들은 잘 작동하고 있었다. 잭은 지난주 세션에서 논의한 교전을 재현하고자 초기 조건을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잭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기로 쓸 만한 것을 찾아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곧이어 두 번째 폭음이 터졌고, 잭은 비치된 소화기를 움켜쥐었다. 잭은 화학과 10번 실험실 문을 광 열어젖혔다. 그런데 바닥은 깨진 유리wa 도자기 조각,

시큼한 냄새가 나는 액체로 뒤덮여 있었고, 중앙 작업대에는 어떤 장비 하나가 연기를 내뿜으며 불뚱을 흘뿌리고 있었다. 잭은 손에 든 소화기가 전기 화재용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곧바로 내던졌다. 그리고 작업대로 몸을 날려 전원 코드를 잡아 빼버렸다. 그와 동시에 검은 머리의 한 청년이 소화기를 들어 장비를 향해 두 번 정확하게 분사했고, 장비는 흰 가루에 뒤덮이며 진화됐다. 잭은 분말을 피해 뒤로 물러났다. 청년은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잭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요?”

“괜찮아요.” 청년은 소화기를 옆에 내려놓고는 찌푸린 얼굴로 박살 난 장비를 살폈다. “코드 뽑아줘서 고마워요.”

잭은 바닥에 퍼진 액체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점점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가봤던 최악의 술집에서 풍기던 그 냄새였다. “이거..... 맥주예요?”

청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음, 맥주였던 것이죠. 하여간 원래 의도한 건 맥주였는데.....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만들고 있던 거예요. 실험 고고학 214 조교거든요. 학기마다 맥주를 빚어요. 근데 이번에는 테오코폴로스 교수님이 하토르 신전에서 발견된 레시피를 쓰자고 하셔서요. 저는 당시 맥주를 어떻게 보존했는지 세웠던 이론을 검증해 보려고 했고요. ....보아하니 둘 중 하나는 틀렸나 봐요.”

“그런 것 같네요.” 잭은 실험실을 두리번거렸다. 실험실 끝 벽면 선반에는 커다란 유리 용기들이 멀쩡히 놓여 있었지만, 다른 한쪽 선반은 넘어져 있었다. 위에 도자기 단지와 유리 카보이를 올려뒀던 모양인데, 전부 떨어져 산산이 조각나 있었다. 형언하기 힘든 맥주 냄새가 진동했다. 작업대에는 터져버린 중간 크기의 단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게 장비를 합선시킨 원인이었다. 청년은 아쉬운 눈빛으로 아수라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위기가 지나가자 잭의 시선이 자신이 구한 청년에게로 흘러갔다. 검은 머리, 날카로운 이목구비, 겨울 끝자락인데도 그을려 있는 피부, 그리고 헬스장 밖에서 단련된 듯한 근육. 잭은 자신이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자.’ “청소 도와줄까요? 원하신다면요.”

“일 방해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나저나 전 빈센트라고 해요.”

“책임니다.” 잭은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빈센트가 손을 맞잡았다. “로봇공학과 12번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리고 있긴 한데, 좀 낡되도 상관없어요.”

“그럼, 음..... 네, 도와주시면 정말 좋죠.” 빈센트는 실험실을 한 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하나의 질문에는 확실히 답을 얻었네요. 이게 맥주 발효법은 절대 아니라는

거요. 근데 보통은 그걸 알기까지 뭔가 터지는 일은 없는데 말이죠.” 빈센트는 휴지통 하나를 가져와 유리 조각과 도자기 파편을 주워 담기 시작했고, 잭도 따라 했다.

“근데 왜 맥주를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잠시 흐르고 잭이 꺼낸 의문이었다. “레시피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고대 세계에서 ‘레시피’라고 하면 보통은 이미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메모 같은 거예요.” 빈센트가 설명했다. “이번 건, 저희 추정이지만 특별해요. 결혼식용 맥주거든요. 근데 들어간 재료 중에 정확히 뭔지 모르는 게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결혼식에 맥주를 내었다고요?” 잭은 대화를 이어가고자 가볍게 물었다.

빈센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각 몇 개를 휴지통에 털어 넣었다. “고대 이집트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맥주를 마셨어요. 왕실 일꾼은 하루에 4리터 정도의 맥주를 배급받았고, 그중 상당수가 신전에서 양조됐죠. 그런데 이번 기록은 왕실 결혼식에 대한 거고, 맥주를 평소보다 오래 저장했다는 암시가 있어요. 제가 추정한 보존 방식은.....” 빈센트는 작은 단지의 목 부분으로 보이는 조각을 들어 보았다. 뚜껑은 아직도 타르 같은 물질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확실히 틀린 거죠.”

“그래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잭이 물었다. “역사 속 맥주 맛이 궁금해서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빈센트는 허리를 펴며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로마 콘크리트를 만들 때 바닷물이 필요하다는 건 아무도 문서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정보는 구전으로만 전해졌고, 로마가 멸망하면서 유실됐죠. 근데 그게 로마 건축물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예요. 맥주의 경우엔..... 도대체 어떤 점이 특별해서 왕실 결혼식에서 낼 정도였을까요? 그걸 알면 당시엔 어떤 자원을 쓸 수 있었는지 아는 것도 가능하겠죠?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도 알 수 있고요. 다행히 통제군은 멀쩡해요. 저기 큰 유리 카보이에 든 게 그거예요.” 빈센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런 건 학생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데도 효과가 좋아요.”

잭도 웃으며 말했다. “딱 봐도 알겠네요.”

“보통 시음은 많이 안 시켜요.”

“결혼식 때 내놓진 않았어요?”

“저, 음..... 미혼이에요.” 빈센트는 커다란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들다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다. “게다가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라.”

“더 고약한 냄새도 맡아봤는데.” 잭이 말했다. “물론 그 바는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지만요.”

빈센트가 웃음을 터뜨렸다. 잭이 바랐던 대로였다. 그 순간 잭은 생소한 따스함이

“더 고약한 냄새도 맡아봤는데.” 잭이 말했다. “물론 그 바는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지만요.”

빈센트가 웃음을 터뜨렸다. 잭이 바랐던 대로였다. 그 순간 잭은 생소한 따스함이 가슴속에 번지는 걸 느꼈다. 시뮬레이션이니 뭐니 하는 건 아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가슴속에 번지는 걸 느꼈다. 시뮬레이션이니 뭐니 하는 건 아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빈센트가 말했다. “선반 좀 같이 세워주세요. 바닥은 진공청소기로 마저 치울게요.”

“걸레질도 해야죠.” 잭의 말에 빈센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 할 순 없죠.”

“도와드릴게요.”

“힘든 일 대신 해주겠다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빈센트가 그렇게 말하자 잭의 웃음도 활짝 피어났다.

잭이 선반을 힘껏 들어 올려 세웠고, 빈센트가 선반 판들을 끼워 넣었다. 둘은 함께 바닥을 정리했고, 빈센트는 소화기 분말로 얼룩진 자국을 처리했다. 잭은 주변을 둘러보다 큰 유리 단지 중 하나에서 거품이 스산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발견했다. “저거 원래 저래요?”

빈센트가 낮게 욕설을 내뱉더니, 단지를 선반에서 집어 실험대 위로 옮겼다. 그가 마개를 만지작거렸는데, 결국 빠져버렸다. 잭은 손을 뻗어 빈센트의 얼굴 앞을 가렸고, 곧이어 맥주 거품이 간헐천처럼 폭발하며 두 사람을 덮쳤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실험실이 정리되자, 두 사람은 마주 선 채 눈을 맞췄다. 그리고 빈센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으니 최소한 결혼식 맥주 맛은 보셔야죠. 다 준비되면요.” 빈센트의 미소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물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럴 땐 승부수를 띄워야지.’ 잭은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데이트가 될 수 있을까요?”

빈센트의 미소가 환하게 퍼졌다. “그러면 너무 좋죠.”

---

화물기는 급선회하며 최종 접근을 준비했다. 잭은 밝아오는 하늘 아래 루나사피를



감싸고 솟아오른 산맥을 훑듯 바라보았다. 산비탈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예측이 어려웠지만, 조종사는 비행기를 깔끔하게 활주로에 내려앉혔다. 잭은 부조종석에 앉아, 지역 관제사가 상업용 격납고 그림자 아래 게이트로 조종사를 유도하는 소리를 흘려듣고 있었다. “비행 승씨가 훌륭하군.”

엔진을 정지시킨 조종사가 헤드셋을 벗었다. “칭찬 감사해요. 화물 인부들이 도착하려면 한 20분쯤 걸릴 거예요.”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외곽 철조망에 난 틈까지 이동해 덤불로 빠져나가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잭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기지개를 켜 다음, 조종석 바로 바깥에 둔 가방을 집어 들었다. “화물이 전부 오아시스행이던데, 오아시스가 여기서 뭘 하는지 아나?”

조종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그런 화물이 많아요. 루나사피에 연구소 같은 걸 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솜브라가 자신에게 맡긴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다. 재킷 안주머니 깊이 숨겨둔 데이터 드라이브를 톡톡 두드렸다. 솜브라가 누굴 노리는 걸까. 오아시스 과학 공동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표적이었다. 잭은 곧 만나게 될 인물이 제대로 된 실력자이기를 바랐다.

조종사가 한쪽 레버를 힘껏 당겼다. 그러자 잭의 발밑 근처에서 패널이 열렸고, 아래로 드롭 튜브와 비행기 밑 활주로나 어렵פות이 드러났다. 잭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보수를 꺼내 조종사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조종사는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돌아갈 때도 이용하실 건가요? 내일 아침 7시에 뜰 거예요.”

“아마도.” 잭은 가방을 튜브에 내려보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패널 가장자리에 몸을 걸터앉아 손잡이를 더듬어 잡고, 몸을 아래로 쪽 내렸다. “내일 안 보이면 기다리지 말고 출발해.”

“알겠어요. 행운을 빌어요.”

“고맙군.” 잭은 다시 한번 인사하고 그대로 몸을 떨궜다. 그는 큰 수송기의 그림자 아래로 가볍게 착지했고, 바닥에서 가방을 주워 든 다음 주위를 살폈다. 누군가 지켜보는 기척은 없었다. 잭은 외곽 철조망으로 향했다. 누군가 미리 잘라둔 녹슨 철망 사이로 재빨리 몸을 옥여넣은 뒤, 덤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다. 비행장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고, 잭은 곧 숲 사이로 자취를 감췄다.

해가 정점에 닿을 무렵, 잭은 루나사피 외곽에 도착했다. 도시에서 작물을 기르는 하방 계단식 경작지였다. 그 위로 절벽을 따라 깎아지른 지대에는 도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두껍게 쌓은 벽은 안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페루의

고대 도시들을 계승한 구조였다. 빈센트가 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 전후에 세워진 도시들은 고대의 건축 양식을 되살려 무게감을 더한다고. 이렇게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하지만 책의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었다.

‘사고가 났던 장소 근처에 있을 거야.’ 솜브라는 그렇게 말했다. ‘기념비 말고. 그 장소 근처에만 가 봐. 장담하는데 개가 널 먼저 찾아낼걸.’

책은 솜브라가 보여줬던 지도를 떠올렸다. 지금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덩불 사이에서 틈새를 찾고 있었다. ‘그래, 저기 있군.’ 언뜻 보기엔 우연히 생긴 것처럼 보이는 틈이 있었다. 자세히 살펴봐 안쪽에 언덕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숨어 있었다. 책은 가방을 둘러메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갔다.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일부 험난한 구간에서는 손을 써가며 몸을 끌어올려야 했다. 처음엔 라마들이 다니는 길로 생각했지만, 그 라마조차 오르기 어려울 만큼 험한 비탈도 있었다. 마침내 길의 끝에 다다라 능선을 넘자 작은 계곡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때 그 중심에는 건물이 있었던 듯했지만, 지붕은 사라졌고 벽은 들쭉날쭉한 폐허가 남아 있었다. 중앙에는 계단식 피라미드가 하나 자리하고 있었는데, 꼭대기는 평평했다. 사고가 일어났다는 바로 그 현장이었다.

책은 능선 아래로 몸을 낮추고 HUD를 활성화했다. 폐허를 스캔하며 움직임이 있는지 살폈다.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등산의 피로를 식혀 주었지만, 아래쪽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책은 가방을 벗어 덩불 속에 숨겨둔 뒤, 펄스 소총을 꺼내 조심스럽게 언덕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폐허에 가까워질수록 책은 더 신중해졌다. 폭발로 인해 튀어나온 듯한 건물의 돌덩어리들을 피해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엄청난 폭발이 있었던 건 분명했다. 그 순간 책의 귀에 취리히 오버워치 본부가 폭발했던 날의 잔향이 어렴풋이 울렸다. 이곳의 폭발도 그에 못지않은 규모였으리라.

그때 조준경에 경고 표시가 번쩍였고, 책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황금빛 소총을 휘둘러대는 망토 쓴 인물의 일격을 피했다. 책은 굴러서 빠져나온 뒤, 몸을 세워 총을 겨눴다. 방아쇠를 당기진 않았다. “솜브라가 보냈어!”

망토를 두른 여성이 동작을 멈추고 총을 내렸다. 책은 그제야 알아차렸다. 매우 젊은 여성이었다. 금색이 섞인 머리카락은 금빛 방어구와 잘 어울렸다.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닌데.”

“솜브라가 안부 전해달라더군.” 책은 약속된 암구호를 기다렸지만, 여인은 여전히 총을 완전히 내리지 않고 있었다.

“일리아리라고 해.”

“이 물건을 전해주라던데.”

# ‘사고가 났던 장소 근처에 있을 거야.’ 숨브라는 그렇게 말했었다. ‘기념비 말 고. 그 장소 근처에만 가 봐. 장담하는 데 개가 널 먼저 찾아낼걸.’

이번엔 일리아리가 정말로 소총을 내렸다. “따라와. 여긴 얘기하기 좋은 곳이 아니야.”

잭은 덤불 속에 숨겨둔 가방을 다시 챙긴 후, 일리아리를 따라 폐허를 빠져나왔다. 또다시 굽이지고 가파른 길이 나왔다. 그 길은 능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이어졌고, 점점 넓어지다 걸쳐진 듯한 계곡에 이르렀다. 절벽에는 허름한 오두막이 세워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잭은 그 뒤에 동굴 입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여기야.” 일리아리가 말했다. “이제 마음 놓고 말해도 돼. 오아시스가 도시 전체에 감시망을 깔아놨거든.”

잭은 잠시 망설이다 동굴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내부는 예상 이상으로 잘 꾸며져 있었다. 한쪽 벽에는 모니터와 연산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커튼으로 가려진 벽면엔 침대가, 한쪽 구석에는 화려한 무늬의 천이 덮인 의자와 테이블이 있었다.

일리아리가 잭에게 시선을 던졌다. “나한테 줄 게 있다면서?”

“재킷 안에.” 잭은 가슴팍을 가볍게 짚었다. “꺼내도 될까?”

“그래.” 일리아리는 소총을 겨누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려놓지도 않았다.

잭은 재킷을 열고, 천천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데이터 드라이브를 꺼냈다. “네가 찾던 바이러스야.”

일리아리는 드라이브를 건네받았다. “고마워.”

잭은 기다렸다. 하지만 일리아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브라는 정보를 교환할 거라고 했는데..... 아니,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말은 안 했지..... 숨브라는 자신다운 방식으로 빙 돌려서 얘기했을 뿐이었다. 잭은 속은 기분에 얼굴을 찌푸리고는 가방에 손을 뻗었다. “나는 이만.....”

일리아리가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실은 이 바이러스를 오아시스 연구소에 심어야 해. 루나사피에 짓고 있는 거. 침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숨브라는 그게 거래 조건이라는 말 안 했어.”

“나도 잭 모리슨이 직접 전달하러 올 줄은 몰랐지.” 일리아리가 응수했다.

“학교에서 당신 얘기 많이 들었어. 아니, *과거의 당신이라고 해야겠네*. 사망 처리되기 전에. 강화 군인, 전 오버워치 강습 사령관.....”

“너무 옛날 얘기를 꺼내는군.....”

“뭐, 그래도 그쪽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전력인 건 분명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둘이 함께 움직이는 게 혼자보다 나은 건 자명했다. 특히 오아시스가 새로 구축한 시설에 침투해야 한다면. 일리아리는 아직 풋내기 느낌의 남아 있었다. 인티 전사의 활동 시기를 대략 감안해보면, 일리아리는 조직이 무너질 무렵에 합류했을 것이다. 그리고 잭은 모이라 오디오오전과 손잡은 조직을 무너뜨리기로 한 선택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도와주지.”

“잘됐네.” 일리아리는 소총을 옆에 내려두었다. “작전 개요부터 설명할게.”

---

정말 몇 주 만의 첫 휴가였지만, 잭은 도저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움닉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 간신히 진지를 지켜낸 것에 불과했다. 운 좋게도 움닉은 공세를 이어가지 않고 철수했지만, 더 중요한 다른 목표에 자원을 투입하려는 의도가 뻔했다.

가로등은 다시 작동했고, 전력도 복구됐다. 하지만 미사일 공격과 그 뒤를 이은 화재로 인해 무너져 사라진 건물의 자리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 빈센트가 무사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도 연락이 왔으니까. 그럼에도 잭은 아파트 단지로 방향을 틀며 어느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건물은 모두 그대로였고, 창문 커튼 사이로 불빛도 새어 나왔다. 잭이 떠날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빈센트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잭은 전쟁이 순식간에 모든 걸 바꿔놓는다는 걸 잘 알았다.

그는 아파트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올랐다. 의외였다.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으니까. 이 시간이면 빈센트는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불을 켜 채 잠들었을지도 몰라 살살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자 잭은 열쇠에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빈센트가 웃으며 맞이했지만,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잭은 순순히 입을 다물고 문을 닫은 뒤, 빈센트가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빈센트가 손을 멈췄고, 두 사람은 포옹했다. 빈센트의 입술이 잭의 입술에 닿았고, 고양이들이 치웃었다.

“돌아오니까 좋네.”

“아침에 뉴스 봤어..... 걱정했잖아.” 빈센트가 말했다.

“숨브라는 그게 거래 조건이라는 말  
안 했어.”

“나도 잭 모리슨이 직접 전달하러 올  
줄은 몰랐지.” 일리아리가 응수했다.

“운이 좋았어.” 잭이 말했다. 빈센트는 마치 잭에게 운이 언제나 따라줄 거라고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일어나 있을 줄 몰랐는데.”

“팔켄베리 성에 대한 논문 사본을 마티아스한테 보내고 있었어.”

그 말에 잭은 눈썹을 한껏 치켜올렸고, 빈센트는 피식 웃었다.

“알아. 지금 상황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겠지만. 근데 3년 전에 거기서 베야지트랑 작업할 때, 기반암이 대부분의 센서 어레이가 통하지 않는 광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냈거든. 심지어 옴닉들이 사용하는 장비조차도. 그리고 팔켄베리에는 그 기반암을 파내어 만든, 아주 깊은 지하 저장고가 있어. 민간인들 피난처로 쓸 수 있겠지. 옴닉들이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직접 말하긴 어려워서..... 옴닉이 뭘 엿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마티아스라면 알아들었을 거야.”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빈센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려 깊은 마음씨*였다. 빈센트는 군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돕고 있었다. “좋은 아이디어야.”

“제발 유용하기도 했으면 좋겠네.” 빈센트가 고개를 저었다. “배고프지 않아?”

둘은 자그마한 부엌에 있는 접이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고, 빈센트는 마지막 남은 맥주 두 캔을 꺼내 왔다. “아껴뒀던 거야.”

“괜찮게 지내고 있었어?” 잭이 물었다. 물자 부족 이야기는 부대 안에서도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응.” 빈센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동네 말이야. 정원 가꾸는 사람이 많아. 뒤뜰에서 닭 키우는 집도 많고. 이웃끼리 도우면서 그러저럭 버텨지.” 빈센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얼마나 있을 수 있어?”

“48시간.”

“음.” 빈센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있는 동안은 최대한 누려야겠네.”

“그 전에..... 애기 좀 해.”

빈센트가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잭이 재빨리 덧붙였다. 그 말에 빈센트는 다시 미소를 보였다. “그냥..... 알다시피,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좋지 않잖아.”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개판으로 치닫고 있던데.” 빈센트는 이내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나 바보 아니야, 잭. 지금 벌어지는 일 다 보고 있어.”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로봇공학이 아니라 생물학 기반으로 옴닉의 우위를 상쇄하려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 유전자 변형으로 맞서보겠다는 거지. 강화 프로그램인 셈이야. 내가 후보자로 지명됐어.”

빈센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주체가 어딘데?”

“군대. 거기 소속된 과학자가 해. 이름이 노튼이겠나.”

“위험성은?”

“미지의 영역이지.” 잭은 빈센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며 말했다. “아마 꽤 클 거야. 이 프로그램은 수년간 개발됐지만, 전적으로 안전한 건 아니래. 옴닉 사태 때문에 일정도 앞당긴 상태고. 지휘관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해서 보내려 하지 않았어. 그러다 결국 고집을 꺾었고, 나한테 제안을 한 거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기회야.”

“성공할 때의 얘기잖아. 실패하면?”

“연구적인 후유증부터 사망까지.” 잭이 대답했다. 적어도 그 점만큼은 군인 강화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솔직했다. “지금 이 상태도 결코 안전하진 않아.”

“그건 나도 잘 알아.” 빈센트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반응을 바라는 거야, 잭? 지금도 널 잃을까 걱정인데.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난 하고 싶어. 봐, 우린 지금..... 이기고 있는 게 아니야. 이젠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 수준이지. 이걸 그 흐름을 바꿀 기회야. 난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 널 위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 방법이 있다면, 난 할 거야. 무슨 대가를 치르든 간에.”

빈센트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미래일지도, 혹은 잊을 수 없는 과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뭐, 너랑 함께하기로 했을 때부터 이 정도는 각오했지. 그걸 하지 않으면 *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와 줘.”

‘*돌아올게*.’ 잭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건 정작 잭 자신에게 할 자격도 없는 약속이었다. “만에 하나 내가..... 변하더라도?”

이젠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 수준이지.  
이건 그 흐름을 바꿀 기회야. 난 지켜  
야 할 사람이 있어. 널 위해 세상을 조  
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 방법이 있  
다면, 난 할 거야. 무슨 대가를 치르든  
간에.”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딤어. 그냥 돌아오기만 해.”

“죽어라 해볼게.”

그들은 거실 소파에 함께 몸을 기댔다. 빈센트는 책의 가슴에 기대 잠들었고, 그 손가락은 책의 손가락 사이에 얽혀 있었다. 책은 그의 어두운 머리칼을 매만지며, 멀리서 피어오르는 폭발의 섬광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

일리아리는 테이블 위에 떠오른 홀로그램 모델을 바라보았다. 밝은색 테이블보에 비치는 색이 춤추듯 일렁였다. “이게 오아시스의 시설이야. 원래 파카리나 연구단 산하에 있던 건물을 인수해서 개조한 거지.”

책은 주억거리며 모델을 살폈다. 건물 구조는 정교했다. 모이라 오디오런과 그 일당은 무조건 최고급 설비가 아니면 안 되는 모양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바로는, 외곽 경비는 꽤 삼엄해. 근데 일단 연구동에 들어가면 보안이 느슨해져. 정문이랑 하역장에는 능동, 수동 감시 체계가 전부 깔려 있어서 감시가 삼엄하지만 직원 전용 옆문이 두 군데 있어. 비밀번호로 잠겨 있지만, 감시는 비교적 허술한 편이야.”

일리아리의 말투엔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고, 책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숨브라가 자물쇠를 열 수단이라도 줘나 보군.”

“그럴 필요도 없어. 내가 며칠째 지켜봤거든.” 일리아리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근데 좀 놀랐어. 당신이 숨브라랑 같이 일할 줄이야.”

“그 여자는 자기밖에 모른다. 양쪽을 오락가락한다는 것만 알아두면 쓸모 있지.”



일리아리가 고개를 가웃거렸다. “숨브라가 나한테 뭘 줬는지는 봤을 거고. 그럼..... 당신한테 뭘 줬지?”

잭은 잠시 일리아리를 바라봤다. 여인에게서 어떤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꼭 짊어 설명할 수는 없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정보를 줬거든.”

“그래도.....”

“오버워치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막을 알아낼 실마리를 받았어. 많은 사람이 스위스 본부 폭발을 나랑 가브리엘 레예스가 일으켰다고 믿어.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어.” 잭은 일리아리와 눈을 마주쳤다. “모두에게 갇아야 할 빛이 있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힐 거야. 그 순간까지 난 멈출 수 없어.”

“나도.....” 일리아리가 눈을 깜빡였다. 나이보다 훨씬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 마음 이해해. 내 민족, 태양의 후손..... 너희는 ‘인티 전사’라고 부르지. 나도 그 사람들에게 빛낸 게 있어.” 일리아리는 방어구 위, 데이터 드라이브를 넣어둔 자리를 어루만졌다. “전사들은 우릴 지키고, 먹여 살려 줬어. 그런데 오아시스는 그 힘을 가로채려 해.”

“인티 전사들이 전멸했을 때 전부 유실된 줄 알았는데.”

“시절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데이터는 상당 부분 살아남았어. 파카리나는 곤경에 빠졌고, 오아시스랑 손잡았지. 데이터를 자원과 맞바꾼 거야. 파카리나는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오아시스를 믿지 않아.”

“그날 너도 거기 있었군?” 잭은 일리아리의 죄책감과 상실감이 너무나 익숙해 알아보았다.

일리아리는 시선을 돌렸다. “난 평생 전사들을 따라가기 위해 훈련했어. 자질이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리아리는 손가락으로 홀로그램의 벽을 짚었다. “무슨 일이라, 복잡한 것도 없어.”

잭은 기다렸고, 일리아리는 손을 땀 치우며 말을 이었다.

“태양 문양을 새길 때였어. 완전한 인티 전사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지.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사람을 바꿔. 하지만 태양의 힘을 끌어올 수 있게 돼. 근데 이번엔..... 그게 폭발했어. 인티 전사는 모두 죽었어. 나만 빼고.”

잭은 잠시 후 입을 열었다. “그래서 너도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 알고 싶은 거군.”

“당연하지.”

일리아리의 목소리에 담긴 어떤 울림이, 책 안의 심상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모습을 이루었다. 이견 책이 해야 할 일도, 풀어야 할 숙제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때 혼자 앓는 것보다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나았다. 물론 책 자신이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태양 문양을 새길 때가 네 차례였지?”

일리아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부정하려는 몸짓이 아니라, 기억 속의 고통을 떨쳐내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맞아. 네 차례였어. 의식은..... 무사히 끝났고, 완벽한 성공이었어. 그런데 그 힘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어. 한순간에 모두 죽었지. 나만..... 나만 남기고.” 일리아리는 허리를 쭉 폈다. “남겨진 데이터를 전부 검토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원인을 모르겠어. 하지만 오아시스가 훔쳐 가게 두면 안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인티 전사의 유산을 반드시 지킬 거야.”

책은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레예스의 고품과 거대한 폭발의 충격음, 무너져내리던 벽의 굉음이 뇌리에 떠올랐다. 그때는 너무 분노에 휩싸여 제대로 듣지도 못했던 그 소리. 그리고 불현듯 깨달았다. 솜브라가 자신을 여기 보낸 이유. 그리고 솜브라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버워치에 일어난 일과 루나사피에서 일어난 일엔 공통점이 있었다. 상황은 달랐지만, 인류의 발전을 위해 싸우고 사람들을 지키던 조직이, 단 한 번의 거대한 폭발로 궤멸했다는 점에서..... 책은 확인을 하고 싶어졌다.

책은 일리아리를 바라보았다. 자신처럼 과거에 매몰된 사람. 자신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의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 책이 군인 강화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도 단순히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건 빈센트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킬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노튼 박사는 위험에 대해 솔직했다. 책은 모든 걸 감수하고 그 길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운이 따라주었다. 프로그램에서 살아남아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오버워치를 건립하여 변화를 일궜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기 전까지.

자신을 모두 바쳐 헌신했지만, 끝내 눈앞에서 전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 감각. 책은 그 감각을 끄적질 만큼 너무나 잘 알았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홀로그램으로 되돌렸다. “좋아. 이제 계획을 설명해 줘.”

---

어느덧 강가에 안개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공원을 빠져나와 강변로를 걷고 있었다. 책은 빈센트가 축축한 냉기에 몸을 떠는 걸 보았고, 동시에

# 잭은 일리아리를 바라보았다. 자신처럼 과거에 매몰된 사람. 자신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의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것도 느꼈다.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신진대사가 저절로 조절되고 있었다. “저녁 좋았지?” 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빈센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응. 새로 생긴 곳이야. 전쟁 끝나고 처음 문 연 식당이더라.” 빈센트는 도로를 건넜고, 잭은 급히 따라갔다. 두 사람은 강 쪽으로 돌출된 발판에 이르자 발걸음을 늦췄다.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이집트제는 아닌 청동 스피нк스 위로 오벨리스크가 우뚝 솟아 있었다. 질어진 안개는 조형물의 윤곽을 삼켜가고 있었다. 잭은 기억 속에서 이름을 떠올려냈다.

“클레오파트라야 바늘.”

빈센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열한 살 때 삼촌이 여기 데려왔어. 여기 사는 삼촌 댁에 왔을 때였지. 다시 보고 싶더라고.”

“좀 손상된 것 같은데.” 잭은 바로 앞 스피нк스의 탄흔 자국을 가리켰고, 빈센트는 웃음을 터뜨렸다.

“최근 건 아냐. 적어도 저건 말이야. 1차 세계대전 때 생긴 거야.” 빈센트는 얼굴을 찌푸리며 첫 번째 스피нк스를 돌아 오벨리스크 옆으로 이동했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생긴 게 맞지만.”

“그렇네.” 잭의 시야에 두 번째 스피нк스가 있었던 빈 대좌가 들어왔다. 둘은 거무스름하게 그을렸고, 깊은 흠집이 패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첫 번째 스피нк스와 똑같은 홀로그램이 떠올라 있었다. 빛나는 얼굴은 평온하고, 흠집 하나 없었다. 최신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잃어버린 유산의 형상이나마 복구한 것이다.

“우리 얘기 좀 해.”

잭은 움찔했다. 런던에 온 이후로 줄곧 예상했던 말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계속 고민해 왔지만, 오버워치 본부는 취리히에 있고 빈센트의 학문적 커리어는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그래.”

“난 네가 집에 있으면 좋겠어.” 빈센트가 말했다. “함께 있고 싶어. 가족을 꾸리고

싫어.”

“알아.”

“네가 알고 있다는 건 *알아*. 근데 난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질 않잖아.”  
빈센트는 강을 바라보며 속내를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 널 강습 사령관으로 임명했어. 근데 그게 오버워치를 나한테 맞춰 옮겨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지. 유럽엔 미국 프로그램도 많고, 미국 대학도 꽤 있어. 그런 데서 일자리를 알아보면 안 될까?”

빈센트는 한숨을 내쉬었다. “할 수는 있어. 고민도 해봤고, 몇 군데 알아보기도 했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잭?”

“적어도 같은 대륙에 있게 되잖아?”

썩 재미있는 농담도 아니었지만, 빈센트는 웃었다.

“그래, 시차는 훨씬 줄어들겠지. 하지만 넌 여전히 취리히에 있을 거고, 난 또 대륙 어딘가에 있을 거야. 오버워치가 널 필요로 하지 않을 때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나 요즘 진지하게 고민했어. 자식을 갖고 싶어. 자식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일만큼 가족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와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묻는 거야..... 은퇴를 생각해 본 적 있어?”

잭은 눈을 깜빡였다. “못 해.”

“전쟁은 끝났잖아. 너는 요구받은 이상을 다 해냈어. 오버워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사람도 너고. 네가 항상 최고라고 말하던 동료들도 있잖아. 이제는 내려놓아도 돼.”

“*못 해.*” 잭은 다시 말했다. “나도 너만큼 원해. 가족을 갖고 싶어. *우리* 가족을. 우리를. 근데.....”

잭은 말을 멈췄고, 빈센트가 대신 문장을 받았다. “*지금은 안 되겠지.* 알았어. 기다릴게. 널 믿으니까. 근데 지금이 아니라면, 대체 언제?”

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가의 차가운 기운이 재킷과 신발 밑창을 뚫고 스며드는 듯했다. 대답이 없다는 건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것만이 진실이었다.

“전쟁은 끝났어.” 빈센트가 다시 말했다. “우린 이겼어. 넌 언제쯤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넌 언제쯤 미래를 가질 수 있어?”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잭이 말했다. “나도 끝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금, 공동체와 국가들이 무너진 틈을 타서 기회주의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좋아. 그건 인정할게. 하지만 언젠가 진짜 끝이 왔을 때, 잭 너는 뭘 할 거야?”

잭은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안개에 흐릿하게 가려진 조명을 켜 바지선 하나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집과 마당이 있는 삶. 책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너. 아이들. 뒷마당 바비큐. 양말에 샌들. 바가지 씌우는 테마파크 가족 여행.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실감할 수 없었기에, 그 말 역시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역사학자가 이렇게 미래에 집착해도 되는 거야?”

빈센트가 웃었다. “역사는 변화의 학문이야. 내가 확신하는 유일한 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지금과 다를 거라는 거지.”

“그 변화가 싫으면 어찌려고?” 책은 오래전 군인 강화 프로그램에 자원할 때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고는 인상을 구겼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결국 의미 있는 선택이 되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

“군인 강화 프로그램 전부터 널 사랑했어.” 빈센트가 말했다. “오버워치와 옴닉 사태 그 이전부터. 내가 그놈의 맥주를 터뜨린 날에 네가 구해줬을 때부터. 지금의 너도 사랑해.”

“그렇지만.”

“그렇지만.” 빈센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지 알고 싶어. 있는 거야?”

책은 말에 목이 막힌 듯했다. ‘있다’고 대답하고 싶었다. 빈센트가 원하는 모든 걸 약속하고 싶었다. 책 본인도 그걸 바랐기에. 분명 방법이 있으리라. 오버워치 내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책은 그럴 수 없었다. 책은..... 남들보다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책은 모든 실패를 가슴에 새겼고, 모든 상실을 애도했다. 그가 내리는 결정이 세상을 지켰다. 오버워치는 아직 신생 조직이었고, 너무도 불안정했다. 책이 물러나는 순간 범범죄자들은 활개 치고, 인명이 죽어 나갈 것이다. 대가가 너무 컸다. 설령 빈센트와 함께할 수 없다 해도, 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믿음 하나로 책은 숨통이 트일 것이다.

책은 눈을 감았다. 빈센트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도 그러고 싶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간절히 원해. 하지만 약속은 못 해. 너한테는 거짓말 안 할 거야.”

빈센트는 웃는 듯, 우는 듯한 소리를 냈다. “알아. 넌 그럴 사람이 아니지. 그게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야. 그런데도.....”

책은 억지로 눈을 들어 빈센트의 시선을 마주했다. “미안해. 나도.....” 책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무엇을 바라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다. 빈센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다 끝내는 것보단 낫잖아.”

“우린 그런 식 아니지.” 빈센트가 답했다. 그는 손을 뺐었고, 잭은 그 품에 안겼다. 빈센트의 입술에는 짙은 안개의 맛이 배어 있었고, 잭은 눈을 감았다. 이 입맞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이 입맞춤 속에 머무르며 앞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다 빈센트가 몸을 떼었고, 잭은 보내주었다.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진짜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그때 전화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빈센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잭은 빈센트가 안개 사이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부재중 전화 일곱 통, 모두 오버워치였다. 이게 세상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잭은 믿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이 드는 걸까.

---

잭은 일리아리를 따라 또 하나의 좁은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조준경은 야간 투시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다. 하현달은 이제 막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중이었다. 오아시스 기지에 침투하기엔 최적의 밤이었다. 오아시스가 최고의 센서를 갖추지 않았기를... 기지를 도심처럼 환하게 밝혀놓지 않았기를... 둘 다 아니라면 더욱 좋겠지. 일리아리의 계획은 외곽의 경비병들의 주의를 끌 만한 교란을 펼친 뒤, 그 틈에 비밀번호로 잠긴 직원용 출입문을 열겠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작전이야말로 성공 확률이 높은 법이지만, 오아시스를 상대로 단순하게 흘러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리아리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산길 끝에 몸을 낮췄다. 잭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성긴 수풀 사이로 기지를 내려다보았다. 오아시스는 건물과 외곽 철조망 사이 공간을 비워놓고 일정 간격마다 작은 감시 초소를 설치해 두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경비병만 네 명이었고, 잭이 HUD를 조절하자 철조망을 따라 멀리 세 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비가 삼엄하군.”

“예전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일리아리가 낮게 중얼거렸다.

잭은 경비병들이 감시탑 아래를 규칙적으로 오가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감시탑에는 자동 무기가 장착되어 있을 것이고, 단거리 폭발물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오아시스 경비병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별다른 거리낌도 없을 놈들이었다.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진짜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그때 전화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빈센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잭은 두 감시탑 사이에 지형이 살짝 내려앉은 지점을 발견했다. 일리아리 말이 맞았다. 저 지점이 침투엔 최적이었다. 철조망 너머 단지 건물들은 비교적 어둠에 묻혀 있었고, 연구동 문까지 도달하는 건 큰 문제 없어 보였다. 정문은 철조망이 큰 건물을 따라 좌측으로 휘어지는 지점 너머 북쪽 시야 밖에 있었고, 중장비가 연구동에 직접 드나드는 후문은 남쪽에, 마찬가지로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누군가 정문과 후문 양쪽에서 동시에 침투를 시도하는 듯한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경비병들을 초소 밖으로 끌어내는 것도 가능할 터였다. 그 틈에 두 사람의 진입로는 빌 것이다. “센서들은 어찌고?”

“안 써.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서 잘못 울리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거든.” 일리아리가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내가 유도한 것도 좀 있지만.”

그 미소가 도움이 됐다. 잭은 주먹만 한 장치 두 개를 꺼냈다. 잭이 감시 기지: 그랜드 메사에서 챙겨 나온 물건은 펄스 소총만 있는 게 아니었다. 잭은 하나를 일리아리에게 건넸다. 일리아리는 경계하는 눈으로 장치를 살폈다.

“수류탄이야?”

잭은 고개를 저었다. “래틀러야. 오버워치에서 사격을 유도할 때 쓰던 장비지.” 잭이 제어판을 띄웠다. “인위적으로 총성을 일으켜. 정문과 후문 위쪽 언덕에서 누가 접근 중인 것처럼 들리게 할 수 있어. 경비병들 시선이 끌리면 우린 그사이에 들어가는 거지.”

일리아리는 장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래틀러를 챙긴 일리아리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잭은 지나온 길로 돌아가 능선 마루로 이어지는 길을 찾았다. 그리고 몸을 낮춘 채 전진했다. 잠시 멈춰 상황을 살피니, 경비병들은 기계적으로 순찰 경로를 오가고 있었다. 래틀러가 저들의 방심을 흔들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정문 쪽은 지형이 더 가팔랐고, 동쪽에서 들어가는 진입 도로는 언덕 틈을 지나면서 구불구불한 형태였다. 잭은 언덕에서 내려가는 길 중간쯤에 래틀러를

설치하기로 정하고, 조심히 자리를 옮겼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몸을 숨기고 손바닥만 한 돌멩이 몇 개를 집어 들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언덕 아래로 던졌다. 돌은 덩불을 통과하며 바닥에 쿵 부딪혔고, 그 소리에 출입구 경비병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작은 돌멩이 오른쪽에 치우쳐 2개를 더 던졌고, 또 다른 경비병 둘이 멈춰 짧게 대화를 나눴다. 작은 이번엔 이전보다 가까운 지점에 돌 하나를 더 던졌다. 그러자 경비병 하나가 철조망 아래쪽 병사에게 손짓을 보냈다. 그 병사는 허리춤에서 손전등을 꺼내 경사면 위로 빛을 비쳤다.

그 순간 래틀러가 작동했다. 갑작스러운 굉음이 순식간에 고조되며 간헐적인 섬광이 어둠을 찢어발겼다. 경비병들이 소리를 지르며 반응했고, 기지 안쪽에서 증원 병력이 쏟아져 나와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작은 퇴각했다. 큰 고목 하나가 앞길을 막고 있었고, 작은 힘껏 밀어 경사면 아래로 굴러 보냈다. 쿵 부딪히는 소리에 경비병들이 다시 고함을 쳤다. 작은 재빠르게 언덕 위로 올라갔다.

일리아리는 앞쪽 근처에 있었다. 아까 봐둔 침입 지점이 내려다보이는 덩불에 몸을 숨긴 채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쪽 철조망 쪽 경비병들을 가리켰다. “다 빠진 건 아니야.”

작은 고개를 고덕었다. “기다려.....” 작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리아리의 래틀러가 작동했고, 경비병들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후문 쪽에서도 고함이 들렸고, 보이던 병사 중 두 명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다. 망설이던 세 번째 병사도 결국 뒤따랐다. “지금이야.”

일리아리가 철조망 쪽으로 몸을 날렸고, 작은 엄호할 태세를 갖추고 뒤쪽의 움푹 꺼진 지형에 몸을 숨겼다. 그는 일리아리가 철조망을 자르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다. 일리아리는 잘린 선을 잠시 바라보다 집중하기 시작했다.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이 완전한 금빛으로 물들더니 태양처럼 빛났다. 일리아리의 손끝에서 불꽃 하나가 튀었고, 그 순간 외곽의 조명이 전부 꺼졌다.

“중군.” 작은 뒤이어 틈새 몸을 밀어 넣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연구동 옆 그림자에 몸을 숨겼다. 출입구 옆 잠금 패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일리아리는 소총을 어깨에 맨 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희미한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느릿하게 열렸다.

“들어왔어.”

어두운 홀은 텅 비어 있었다. 일리아리의 정보는 지금까지 완벽히 들어맞고 있었다. 작은 뒤를 돌아 문이 잠겼는지 확인했고, 일리아리는 오른쪽 복도를 가리켰다. “이쪽이야.”

작은 그 뒤를 따르며 혹시 모를 경비병이나 야근 중인 기술자는 없는지 살폈다.

지금까지는 모든 구역이 비어 있었다. 실험실은 닫혀 있었고,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다. 잭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메인프레임 위치는 알고 있겠지?”

잠시 일리아리는 못 들은 것처럼 반응이 없었다. 이내 짧고 불안정한 숨소리가 들렸다. “이쪽일 거야. 아마도.”

‘이런 건 확실히 알아야지.’ 잭은 그렇게 말할 뻔했지만, 지금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중앙 쪽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둘은 복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도달했고, 일리아리는 멈춰서서 살폈다.

‘신중한 건 좋지.’ 잭은 생각했다. 그 순간 일리아리의 눈이 살짝 감겼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잭은 그 뒤를 따라 움직였다.

이 복도에는 훨씬 큰 실험실이 늘어서 있었다. 좁은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기계 장치들과 거대하게 자라난 이상한 식물, 생전 본 적 없는 파충류 종이 보였다. 오아시스가 이곳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였다. 일리아리는 창 없는 육중한 문 앞에서 멈춰 섰고, 키패드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여기야?” 잭의 물음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번호 알아.” 일리아리가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입력했다. 하지만 떠오른 것은 붉은 불빛이었다. “젠장!”

일리아리는 문을 노려보았고, 손은 이미 소총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잭은 깨달았다. 일리아리는 총으로 쏘 부술 생각이었다. 그랬다간 재앙이 될 터였다. 지금까지 따돌린 경비병이 벌떼같이 몰려들 테니까. 하지만 잭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일리아리는 감정을 다스렸고, 심호흡을 한 뒤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이번엔 문이 스르륵 열렸다.

잭은 문 안쪽 벽에 몸을 붙이고 공간을 재빨리 훑었다. 지금까지 지나친 다른 실험실처럼 이곳도 텅 비어 있었고, 화면은 모두 꺼져 있었다. 절전 모드로 전환된 상태인 듯했다. 말인즉슨 아직 아무도 침입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일리아리는 조심스럽고 빠르게 워크스테이션을 오가며, 키를 눌러 단말기를 깨워 상태를 확인하고는 다음으로 옮겨갔다. 그러다 나지막한 소리를 내면서 멈춰 섰다. “여기야.”

잭은 마지막으로 홀 쪽을 확인한 뒤 일리아리 곁으로 다가갔다. 목소리에서 묻어 나오는 미세한 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잭은 일리아리가 키를 두드려 화면을 넘기는 걸 지켜봤다. 그러다 마침내 파일 목록으로 보이는 화면에서 멈췄다. “이거야.” 일리아리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게 전부야.”

“확실해?” 잭은 화면을 응시했다. 목록이 수십 개나 있었고, 분명 파일 구조의 맨

#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이 완전한 금빛으로 물들더니 태양처럼 빛났다. 일리아리의 손끝에서 불꽃 하나가 튀었고, 그 순간 외곽의 조명이 전부 꺼졌다.

윗단만 드러난 상태였다. 오아시스는 인티 전사의 데이터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복구한 모양이었다.

“그래.” 일리아리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맞아, 이게 다야. 남은 전부.” 책은 조심스럽게 일리아리를 살폈지만, 그녀는 이미 방어구에 손을 넣어 솜브라가 준 드라이브를 꺼내 들고 있었다. 일리아리는 드라이브를 꽂고 짧은 문자열을 입력한 뒤, 살짝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기호로 가득 찼다.

“문제야?” 책이 물었지만, 일리아리는 고개를 저었다.

“불러오는 중이야.”

‘솜브라는 실력이 좋지.’ 책은 스스로 되뇌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테고.’ 실제로 그랬다. 화면은 다시 파일 목록 화면으로 전환됐고, 파일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인티 전사의 지식은 깜빡거리며 세상에서 없어졌다.

일리아리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고, 손등의 핏줄이 희게 드러났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책은 그 표정을 알고 있었다. 책임감의 무게를. 인티 전사의 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강했고,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었다. 이 지식을 지켜야 하는 건 일리아리 혼자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파괴해야 했다. 책도 종종 같은 감정을 느꼈다. 오버워치가 무너지고, 세상이 책에 대한 기억을 텅 빈 무덤에 물어버린 그 이후에도, 그는 오버워치의 유산을 짊어지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마지막 파일이 사라졌다. 일리아리의 뺨을 따라 두 줄기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이윽고 일리아리는 고개를 젓고 단말기로 몸을 숙였다. 파일이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로서 일리아리는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태양의 후손이 되었다.

책은 일리아리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지 잘 알고 있었다. 책은 문을 힐끔거리며 외곽 경비병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눈치채기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을지를 가능했다. 그때 일리아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 끝났어.”

“그럼 나가자.”

두 사람은 왔던 길을 되짚어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출입구에 멈춰 섰고, 잭은 탁 트인 지대를 살폈다. 경계 조명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철조망에서도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이야!”

일리아리는 재빨리 틈새를 향해 달려 나갔다. 잭은 건물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엄호할 준비를 했다. 일리아리는 울타리를 통과해 곧장 덩굴 속으로 숨어 들었다. 잠시 후 일리아리는 밖으로 몸을 내밀어 소총을 들었고, 잭은 곧바로 뒤따랐다. 틈새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결국 무사히 빠져나왔다. 잭은 힘차게 언덕을 뛰어올라 일리아리가 있는 덩굴에 몸을 던졌다. 그 직후 외곽 경보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둘은 간발의 차로 빠져나왔다.

“이제 됐어.” 일리아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일리아리의 은신처까지 아무 일 없이 돌아왔다. 잭은 의자에 털썩 몸을 던졌고, 가방을 끌어당겨 장비 상태를 점검하며 재정비를 시작했다. 일리아리는 돌아서서 화면을 확인하더니, 이내 몸을 돌려 데이터 드라이브를 내밀었다. “받아.” 뜻밖의 물건에 잭은 눈을 한 번 깜빡거렸다. 그러자 일리아리가 덧붙였다. “태양 문양을 새길 때의 에너지 수치하고 영상 기록이야. 이게 오버워치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당신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

잭은 드라이브를 받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물건을 맡긴다는 것. 이걸 잭뿐만 아니라 일리아리에게도 희망의 상징이었다.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반드시 결과를 알려주겠다.” 잭은 드라이브를 가방에 집어넣고는 한 번 들어 균형을 확인했다. 오아시스 보안팀이 도시 내부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게다가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빠듯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도..... 잭은 일리아리에게서 어떤 유대를 느꼈다. 일리아리의 안위에 대한 책임감을.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오아시스가 널 쫓을 거야.”

“그건 이미 대비해 났어.” 일리아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날 공격과 연결 지을 단서는 못 찾을 거야.”

“그렇겠지. 하지만 뭘 빼앗겼는지 확인하는 순간, 누가 인티 전사의 비밀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겠지. 화살은 자연스럽게 너한테 향할 거고. 모이락 오디오런은 똑똑하고 위험한 사람이야. 항상 조심해야 해.”

그제야 일리아리가 단말기에서 몸을 돌렸다. “숨브라도 똑똑하고 위험하지.”

일리아리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고, 손등의 핏줄이 희게 드러났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잭은 그 표정을 알고 있었다. 책임감의 무게를. 인티 전사의 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강했고,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었다. 이 지식을 지켜야 하는 건 일리아리 혼자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파괴해야 했다.

“그 여자도 조심해야지.” 잭이 말했다. “도움은 된다고 해도 말이야. 하지만 오디오런은 포기하지 않아..... 여러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너는 상상도 못 할 자원이 있어.” 잭은 일리아리가 반박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뼈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말하면 듣는군.

잭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마침내 마음속에 맴돌던 말을 꺼내 보기로 했다. “있잖아..... 굳이 루나사피에 남아 있을 필요는 없어. 죽은 친구들 무덤을 지키면서, 누릴 수 있었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다른 선택지도 있어. 내 지인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그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근데 내 몸 하나는 잘 간수할 수 있어. 이건 내 책임이야.”

잭은 움찔했다. 일리아리는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 빈센트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는 듯한.

잭은 자신도 모르게 피곤하고 슬픈 어조로 대답했다. “오래전에 누가 나한테 전쟁은 다 끝난다고 말한 적 있지. *내* 전쟁도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그러니 전쟁이 끝날 때 날 기다려줄 무언가를 꼭 마련해 두라고 했어. 근데 난 그러질 못했지. 그런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았어. 그래서 내 전쟁은 끝나지 않아. 이제 긴 길의 끝에 다다랐는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일리아리의 머리카락이 금빛으로 번쩍었다. “나는 지금도 태양의 후손이 남긴 유산을 지키고 있어! 그렇게 가볍게 입에 담을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라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일리아리는 잠시 침묵하며 시선을 돌리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저으며 추של렀다. “이, 이 임무가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알 수 있겠지. 이걸

내 길이야. 그리고 난, 내가 한 선택의 희생자가 아니야. 나는 긍지를 품고 나아갈 거야.”

“그럼 행운을 빌지.” 잭의 말에 일리아리는 무겁게 고개를 고덕었다. 잭의 진심을 안다는 듯한 표시였다.

잭은 가방을 둘러메고, 루나시피에서 떠나가는 먼 길을 걷기 시작했다.

‘빈센트라면 저 아이를 좋아했겠지.’ 둘은 아마 자주 부딪혔겠지만, 결국 서로의 열정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둘 중 누구도 후회 따위는 하지 않았겠지. 잭은 너무 많은 후회를 안고 있었다. 돌이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선택들.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선택들. ‘어쩌면 그게 문제일지도 몰라.’

불속 떠오른 생각은 잠시 잭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에 충분했다. 몸의 절반은 그늘에, 절반은 햇빛에 잠긴 채, 낮선 새들의 울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지도 모른다. 오버워치가 몰락한 뒤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은. 옴닉 사태 이후로 세상을 구하는 일에 집착하게 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잭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갖고 싶었지만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

잭은 눈을 감고 선택하지 않은 삶을 상상해 보았다. 그 세계에서 잭은 빈센트와 결혼했고, 함께 자식들을 키웠다. 매년 여름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건너갔고, 빈센트는 연구를 하고 잭은 자문 일이나 잠깐씩 말았다. 로마와 빈, 비르카와 팔켄베리. 박물관과 탁 트인 교외. 세상을 구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삶.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전에 지나갔다. 잭은 선택을 했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제는 모든 걸 놓아줄 때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무언가를 선택할 시간일지도.

잭은 능선 꼭대기에 도달했다. 눈앞에는 루나시피가 펼쳐져 있었다. 각진 건물들이 햇살 속에서 우뚝 솟아 있었다. 뒤쪽 숲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살아있는 녹음의 향기를 전했다. 잭은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손끝에 낡고 해진 사진의 모서리가 닿았다. 잭은 사진을 꺼내 익숙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자신과 빈센트였다.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두 사람. 옴닉 사태 이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던 시절. 사진이 바람에 퍼럭었다. 잭은 손에 힘을 주었다. 오랫동안 이 사진을 품고 다녔다. 빈센트와 함께한 마지막 조각.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잊기 않기 위한 매개체. 조금만 더 간직해도 괜찮겠으리라. 그런다고 별일이야 생기겠나. 하지만..... 이걸 이제 추억도 아니었다. 그저 실현될 수도 있었던 한 미래의 그림자일 뿐. 바람이 더 강하게 사진을 잡아끌었고 잭은 손을 놓았다. 사진이 햇살 속으로 날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빈센트의 미소였다.

# 잭은 선택을 했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제는 모든 걸 놓아줄 때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무언가를 선택할 시간 일지도.

잭은 그 미소를 향해 웃음으로 화답하고 돌아섰다.

빈센트,

예전부터 쪽 전하고 싶었어. 취리히에서 살아남았다고. 어쩌면 넌 놀라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내 운이 어떤지는 네가 잘 아니까.

런던에서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를 계속 곱씹게 돼. 내가 너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 그때의 나는 너를 위해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믿었어. 실제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를 바라봐야 했는데 말이지.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고 그걸 넘어서야 했는데. 그리고 그 뒤로, 정말 모든 전쟁은 끝난다는 걸 깨달았어. 이젠 그다음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지.

그렇다고 갑자기 널 찾아가진 않을 거야. 지금의 넌 잘 어울리는 사랑을 찾았잖아. 그게 너무 기뻐. 다만 내가 살아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어.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말을 하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네 말이 울렸어.

잭 보냄



## 작가 소개

Melissa Scott은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브렌다이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오리지널 및 타이인 소설을 포함해 40편 이상의 장편 소설과 몇 편의 단편을 발표했으며, 대부분 퀴어 테마와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다. 람다 문학상을 4차례, 스펙트럼 어워드를 4차례를 수상한 바 있다.